

읽히는 역사 위한 역사 풀어쓰기

특정 시기와 역사적 사건 다룬 책 잇따라

정사(正史)는 딱딱한 내용이라 접근이 어렵고, TV사극으로 대표되는 야사(野史)는 흥미는 끌지만 미덥지 않다. 정사와 야사의 중간 성격이 바로 ‘풀어쓴 역사’다. 역사 서술자의 개입을 되도록 피하면서 ‘교양을 겸한 참한 읽을거리’를 지향한다. 사료에 바탕한 견실한 사실(史實)의 추구는 본격 역사서에 못지 않다. 읽히는 역사를 위한

역사 풀어쓰기에서 한국사 전체를 관통하는 통사는 이미 여러권 선을 보였고, 최근에는 특정 시기와 나라 또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책이 나오고 있다.

이현희 교수(성신여대 사학과)의 《이야기 한국 근현대사》(신원문화사)는 7권으로 기획한 전집물로 1860년부터 현대까지 다룰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된 《여명의 땅》은 그 첫째권으로 현종·철종·고종 연간이 서술된다. 이른바 ‘세도정치’로 인한 국정 문란, 관리의 학정, 민란을 통한 백성의 항거가 이어지는 격동기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이야기는 강화도에 유배된 철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외척의 득세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백성임이 분명하지만, 외척들의 견제와 음해로 왕족은 몰락의 길을 재촉한다. 철종의 왕위계승은 조선왕조의 침몰을 예고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의해 권좌에 오른 왕이 다다른 곳은 무능과 백성들의 원망.

부패한 관리의 탐학은 민란을 촉발시킨다. “병사(병마절도사)란 작자는 기생이나 데리고 놀며/백성을 굶어 먹고 사네/들이치자 병영을/아전놈들을 모조리 없애자” 진주민란 당시 불린 노래다. 피폐한 백성의 삶을 바로 세우고, 무능한 정치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이가 흥선대원군이다. 첫권의 후반부는 탁월한 처세술로 기회를 엿보다 권력의 전면에 떠오른 대원군의 활약을 비중있게 그리고, 민씨 일족이 세력을 형성하는 상황까지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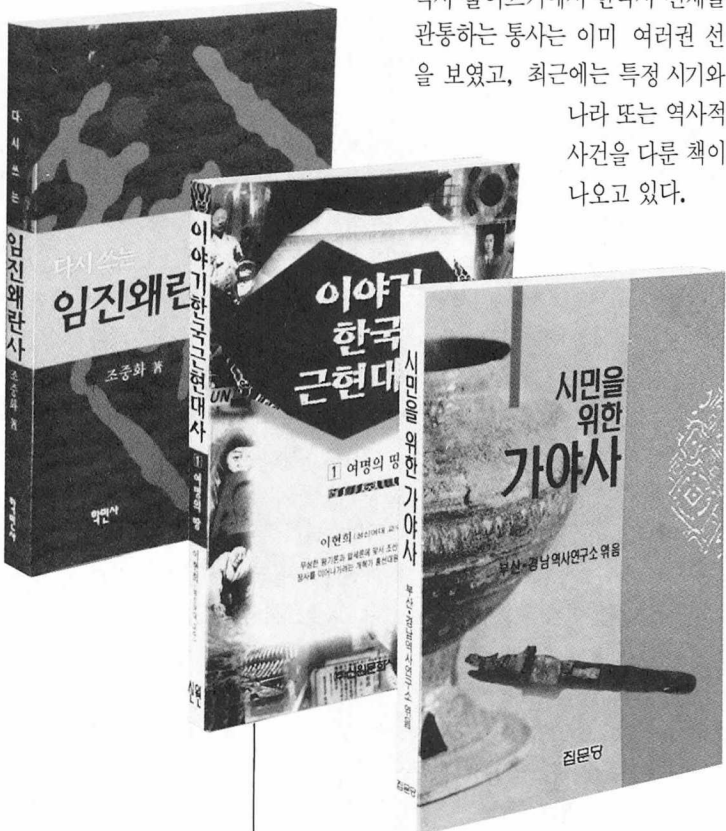
부산·경남역사연구소가 엮은 《시민을 위한 가야사》(집문당)는 일반인을 위한 가야사 개설서다. 이 책은 ‘신비의 왕국’ ‘환상의 왕국’ ‘천오백년에 짜인 베일’ 등의 다분히 선정적인 문구가

따라다니는 가야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다. 가야는 우리 역사의 미심쩍은 부분 가운데 하나다. 생몰연대는 물론이고 전성기의 현황에서 멸망 원인에 이르기까지 미해명의 수수께끼 투성이다. 가야를 주제로 한 역사교실이나 각종 답사에 쏠리는 일반의 관심은 미진한 가야연구 실태의 반증이기도 하다.

부산·경남 지역의 대학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 11명이 집필했는데, 1부에는 가야에 관한 13가지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놓았다. 따로 필자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닌 부산·경남역사연구소 고대사연구부 전체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2부에는 가야지역의 유적과 관련 자료를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야가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역연맹체에 그치고 만 원인으로는 사회적 재생산 기반의 협소함과 교역체계상의 이점을 특정 연맹체가 장기간 독점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학민사)를 지은 조중화씨는 마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임진·정유 7년 전쟁을 연구하는 재야사학자다. 전문적으로 역사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발로 뛰어 전적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해 잘못 기록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다. 날조한 일본의 기록에 근거한 ‘조명군총’, 그의 고향일 수 없는 공주군 반포면에 잘못 세워진 ‘이삼평 기념비’, 전투가 없던 곳에 건립된 ‘부안전적지’ 등이 저자가 제기하는 왜곡된 역사다.

특히 코무덤이 귀무덤으로 둔갑한 내력을 좇는데 열심이다. 저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유재란 중에 일본 경도에 만들어진 것은 “귀무덤이 아니고 코무덤”이라고 진실을 외쳐왔지만 고정관념을 깨기는 어려웠다. 다수의 코영수증과 코베기 명령에 대한 왜군 장수의 심리적 갈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임진왜란사의 올바른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최성일 기자



북한말을 알면 북한이 보인다!!

남북한말 비교사전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중국 동포들의 「조선말」 옛 소련 동포들의 「고려말」을 비교한 최초의 민족어 사전

나그네:남편의 육진 지방말/보탬:부조의 중국 교포 말/갑각질·놀각질·달아나각질·웃각질·실건질/사냥바치·총바치·귀염바치·주눅바치·호사바치.../새록새롭다.../애모쁘다...

【부록】 북한, 중국, 옛 소련 동포들의 문학작품 목록

조재수 씀 / 신국판 / 608쪽 / 값 22,000원

우편주문을 받습니다 - 송금 즉시 연락주시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예금주:이근술/ 국민은행:068-05-0017-994/ 우체국:010231-0051590-12)

토담의 우려나는 책들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①②
배우리 지음 / 신국판 / 각권 390쪽 내외 / 값 6,800원

사전에 없는 토박이말 2400
최기호 지음 / 신국판 / 392쪽 / 값 9,000원

한글 맞춤법 새 길라잡이
최기호 지음 / 신국판 / 400쪽 / 값 6,500원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15 문화빌딩 401호
대표전화:268-8891 팩스밀리:268-8893

삶의 곳곳에 남은 한국전쟁의 상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세 책

남북을 가르는 38선이 '휴전선'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아직도 전쟁중이다. 우리 삶의 도처에 북병처럼 전쟁의 상흔을 남겨놓은 채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6.25가 발발한 지 올해로 46년째.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갖가지 행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관련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책들은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이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에 얼마나 유연성을 가져다주는지 보여준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권의 중국 인민지원군의 전쟁 참전기는 좋은 예다.

《압록강은 말한다》(살림), 《아 압록강》(여명)이 그것. 전쟁 당시 총부리를 겨눴던 적성국가 중국과의 정식수교를 맺는 변화가 없었다면 출간될 수 없었던 책들이다. 1950년 말에 중국 인민지원군 27군단 예하 '청리싸오(勝利報)' 신문사의 중군기자로 한국전쟁에 2년간 참전한 바 있는 쑤요 우지에(孫佑杰)의 체험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 《압록강은 말한다》(조기정, 김경국 옮김)는 비록 공식적인 전사(戰史)는 아니지만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책으로 주목된다.

시간순서에 따라 27군단이 참전했던 경위와 과정, 전쟁의 처절함과 무자비함을 낱말이 폭로하고 있는데, 저자는 "애국주의와 불굴의 영웅주의 정신, 그리고 북한 인민을 열렬히 사랑했던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으로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시각을 표현한다. 우리에게는 다소 당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야



말로 '누가 무엇을 얻고자 벌인 전쟁이었나'라는 전쟁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과 그 맹목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어떻게 죽어갔는지 생생하게 묘사, 흥미를 자극하기도 한다.

《아, 압록강》(전3권)은 중국작가 예위명(葉雨蒙)이 쓴 실명 기록소설이다. 앞의 책이 저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기록이라면 이 책은 광범위한 취재와 인터뷰를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이다(김택 옮김). 저자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으로서 세번째 고위급 인사였던 홍세즈를 비롯한 수십명의 지휘관, 중국 군사과학원, 심양군구(瀋陽軍區), 북경군구 등 군사기관을 일일이 탐방, 수년간 자료를 수집해 생생한 역사 자료에 근거해 이 작품을 집필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면사를 다루면서도 세계사적 조망을 아울러 갖춰 트루먼, 맥아더, 이승만들과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김일성, 박헌영, 스탈린들의 쌍방 대결도 생생하게 다룬다. 전장의 참담한 실상을 묘사하기보다는 피아 쌍방의 복잡한 이해관계, 전략 및 전술 등 미세한 힘의 흐름을 조명하고 그것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80년대 후반, 북한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됐다. 한국전쟁 연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전쟁의 기원'과 '발발책임'에 관한 것. '소련의 팽창주의에 자극받은 김일성의 무모한 도발'(전통주의), '미국 제국주의가 원인'(수정주의) 외에 '국제적 요인과 내부요인이 결합'됐다고 보는 '절충주의'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돼 왔다.

고려대 정의과 강사인 박명림씨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나남)은 기존 연구성과들을 추스르고 냉전 해체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비밀자료들을 포괄한 최신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냉전의 해체로 인해 이념적 긴박으로부터 풀려나 전쟁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전제하는 저자는, 문제를 던지고 해답을 사실에서 구한 연후에 제시하는 '비판 합리주의적 접근방법'으로 한국전쟁의 결정과정, 전쟁의 시작과 발발, 한국전쟁의 기원과 원인, 전쟁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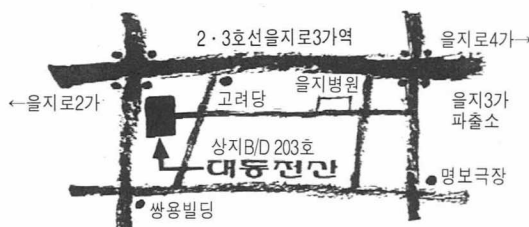
전쟁 참가자들과의 면담과 증언청취,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바친 저자의 노력과 함께, 한국전쟁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위해 새로운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남정 기자

아래아 한글 (IBM PC) 출력 센터

- F1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 F2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 F3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 F5 MS-WORD, 훈민정음 등

신속·정확
(일본어 조판전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3호
전화번호 : 275-0196~7,
265-9271 275-7143

팩 스 : 275-7145 천리안·하이텔 : SOGO0318

♣ 전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을지병원출구

24시간출력
기다리겠습니다!

대동전산

“좋은 출력
좋은 책!”